

포용과 소통에서 시작하는 싱가포르의 노인친화적 공간 디자인

엄현주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들어가며

한국은 저출산과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2018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약 9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6.8%를 차지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고령인구 비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약 20%가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고령친화적 도시공간 구성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노인친화형 건강도시’ 같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설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르신 놀이터 같은 노인친화적 도시공간이 전국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2025년까지 모든 자치구에 ‘시니어파크’를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고령층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이 즐거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서울시, 2021).

우리나라의 노인친화 복지시설

우리나라의 시니어파크는 신체기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놀이터로서 운동과 놀이기구를 중심으로 조성된 체육공간이다. 이러한 시니어파크는 노인들이 더 활기찬 일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어르신 복지를 지원하고자 하는 주요 시설의 일부이다.

광진구에서는 2021년 최초로 ‘스마트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하여 노인들에게 운동 및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친화 복지시설이 고령인들에게 실제로 유용하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신체적 제약을 고려한 운동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접근성과 이용의 편의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광진구에 있는 어르신 놀이터는 언덕 위에 위치하여 오르막을 10분 이상 올라가야만 접근할 수 있어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사례로 꼽힌다(문혜진, 2021). 따라서 시니어파크 같은 노인전용시



서울시 광진구 광진숲나루의 어르신 놀이터(상)와 놀이터 진입로의 경사(하)
출처: 문혜진(2021), 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12877

설을 조성할 때에는 노인들의 실제 공원 이용 행태와 접근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그래야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생활권 공원과 관련한 법률에서는 노인을 위한 생활권 공원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노인들을 위한 시니어파크 같은 노인공원을 법제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인인구를 고려한 도시공원 조성 및 노인친화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노인 특화시설의 법적 규제로 세대 간 공간분리가 더 촉진될 수 있으며,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 등의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손효정, 2023).

이와 같은 사례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인 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경로당을 꼽을 수 있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즐기고 친목 도모를

할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경로당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1990년 전체 노인인구의 약 45%가 경로당을 이용하였으나 2017년에는 약 19.2%로 절반가량 줄었으며, 실제 경로당 이용 노인 연령도 80대 이상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연령이 상승하고 있다(김현우, 2023). 이러한 경로당 이용의 변화는 고령층에 막 진입한 ‘젊은 노인들’이 경로당보다는 이웃 주민들과 교류하는 문화센터 등을 선호하며, 경로당을 ‘진짜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인식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우, 2023). 이 같은 현상은 어르신 놀이터(시니어파크)나 경로당 같은 노인전용공간이 오히려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증가시키며 젊은 세대와의 소통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따라서 우리는 노인들의 포용적인 사회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공원과 시니어파크를 고려하는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 즉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면서도, 다양한 연령층과 교류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인친화시설의 의의와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노인친화적인 도시공간을 설계할 때 세대 간 융합을 고려하여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세대 공원을 조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노인친화적인 시설을 조성할 때 노인전용시설이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고 포용적인 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Lim, 2017).

싱가포르의 KPMG 다세대 웰니스 가든

싱가פור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사회로 전환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노인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

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세대 간 협력과 이해를 장려함으로써 포용적이고 사회적 공존을 지향하는 목표하에 추진된다. 이에 따라 다세대 주거(Multi-generational living)와 다세대 공원(Multi-generational Park)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여러 세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세대 간 교류와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세대 공원은 어린이·청소년·성인과 노인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장소로, 다양한 연령대별 활동을 제공하여 노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거나 걷기를 즐기며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싱가포르의 KPMG 웰니스 가든은 2023년 말 완공 예정인 최초의 다세대 공원이다. 공원은 노약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편한 경사로를 갖춘, 포용적인 여가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며 치유 정원(Therapeutic Garden), 자연 놀이터(Nature Playgarden), 연못 산책로(Pond Trail), 자연 체육공원(Nature Fitness) 등 다양한 활동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공원의 모든 구역은 휠체어 및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한 접근이 가능하며,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하여 기능을 통합한 설계를 적용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공원 이용자들의 신체적·심리적 요구 외에 다양한 세대들과 어울리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야외 치료원에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며, 저강도 운동을 촉진하고 기억력을 자극하며 사람과 자연의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장려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었다(KPMG 웰니스 가든, 2023). 이러한 웰니스 가든은 다양한 세대 간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으로 연결된 공간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부로, 고령화사회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함께 활동하고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손꼽힌다.



KPMG 웰니스 가든의 조감도

출처: NParks(2021),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sg/pdf/2021/11/Factsheet-A-KMPG-Wellness-Garden.pdf>



보행보조장치를 이용한 접근성이 용이한 놀이터(상)와 노인과 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하)

출처: NParks(2023)

치매친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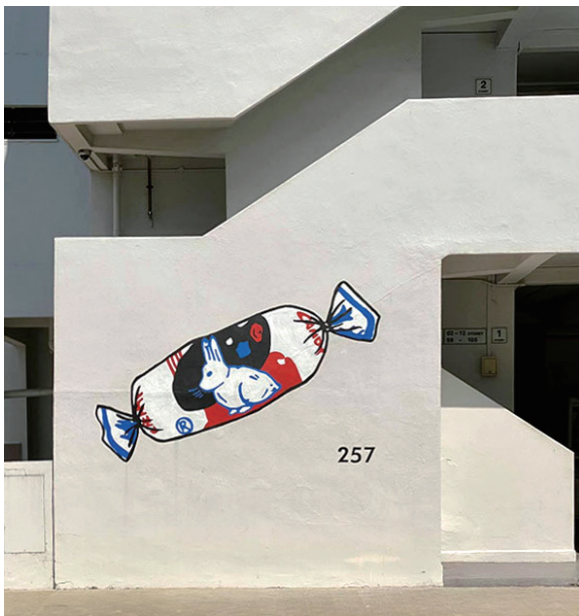
싱가포르의 고령자 친화적인 환경 설계 방안 중 '치매 친화 지역사회(Dementia-Friendly Neighborhood)'는 고령사회에서 증가하는 치매 환자들을 포용하기 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디자인 기법으로, 치매 노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환경 디자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Yuen et al., 2020). 싱가포르의 기술 디자인 대학인 리콴유 도시혁신센터에서 발간한 <치매친화 지역의 여섯 가지 원칙(Six Principles of Dementia-Friendly Neighborhood)> 보고서에서는 치매 환자들이 능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사회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여섯 가지 원칙을 소개하고 있다. 이 원칙들은 익숙함(Familiarity), 판독성(Legibility), 특수성(Distinctiveness), 접근성(Accessibility), 편안함(Comfort), 안전성(Safety)이라는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다.

익숙함

치매 환자는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끼므로 지역사회 설계 시 역사적인 건물이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구조물 또는 장소를 유지하거나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은 치매 환자들이 방향감각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기억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여 익숙하고 친숙한 환경을 제공한다. 다만 환경의 변화를 피하는 것은 지역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기존 지역의 익숙한 상점·공원·건물 등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단계적인 공간 변화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이는 치매 환자가 적용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의 상점 주변에 새로운 요소를 조금씩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익숙함을 유지할 수 있다.

판독성

지역사회 내의 길과 구역은 분명하게 식별 가능하도록



판독성을 높이기 위해 밝은 색상과 간단한 모양을 활용한 건물 표시

출처: Kwa(2021), <https://mothership.sg/2021/06/ang-mo-kio-food-murals/>

설계해야 한다. 일관성 있는 표지판, 도로표시, 건물 표시 등을 통해 경로와 목적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설계를 통해 치매 환자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목적지를 찾도록 도울 수 있다.

특수성

지역 내의 장소와 시설은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각 장소가 뚜렷한 특징을 가지면 치매 환자들은 장소를 더 쉽게 구별하고 기억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시각적 요소나 색상을 활용하여 각 장소를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접근성

지역사회 내의 시설과 서비스는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치매 환자들은 이동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고 편리한 접근 경로를 마련해야 하며, 보도나 경사로와 휠체어 통행 등을 고려한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

편안함

치매 환자들이 편안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나 공원·커뮤니티센터·도서관에 휴식과 모임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의자·테이블과 야외 피크닉 시설 등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상호작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안전성

지역사회 내의 시설과 환경은 치매 환자들이 부상이나 사고 없이 이동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로 및 보행 인프라를 개선하여 안전한 이동 환경을 제공하고, 가로등과 조명을 설치하여 밤에도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주변 시설과 길 안내를 위한 표지판이나 지도를 설치하고 간단하고 명확한 이동 경로를 조성하여 이동 시 혼란을 줄여야 한다.

맺음말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친화적 도시공간은 어떻게 조성되어야 할까? 먼저 다양한 연령층을 수용하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도시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 모든 연령층과 다양한 신체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노인인구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세대 간의 교류와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여 노인들이 도시공간의 시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장애물을 최소화하고 접근 경로를 편리하게 설계해야 한다. 특히 휠체어나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하는 노인들도 무리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도시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참고문헌

- 1 김현우. (2023). 58년 개띠에 외면받는 '경로당' 치매쉼터로 확대 고려해야. 여성경제신문.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164>
- 2 문해진. (2021). 어르신 놀이터 현장 찾아보니 '무용지몰'. 브라보 마이라이프. 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12877
- 3 서울시. (2021). 어르신복지종합계획. <https://news.seoul.go.kr/welfare/?p=536185>
- 4 손효정. (2023). '노인을 위한 공원' 증가, 논란이 되는 이유. 브라보 마이라이프. 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14551
- 5 Kwa, A. (2021). Ang ku kueh, 9-storey kueh & satay murals in AMK HDB estate aid elderly in finding way home. <https://mothershipsg/2021/06/ang-mo-kio-food-murals/>
- 6 Lim, Y. C. (2017). Intergenerational Public Neighbourhood Spaces : Ageing in Place in Tiong Bahru, Singapore. Master's Thesis, Helsinki, Finland: University of Helsinki.
- 7 Nparks (2021) Factsheet - Key Features of the KPMG Wellness Garden.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sg/pdf/2021/11/Factsheet-A-KMPG-Wellness-Garden.pdf>
- 8 Yuen, B., Bhuyan, R., Močnik, Š. & Yap, W. (2020). Six Principles of Dementia-Friendly Neighborhood. Lee Kuan Yew Centre for Innovative Cities, Singapore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Design. <https://www.aic.sg/resources/Documents/Brochures/Mental%20Health/SUTL%20Dementia%20Friendly%20Guidelines.pdf>